

【서평】

## “설명적 해석학”을 통한 객관주의 역사학의 정당화 시도

『역사학의 철학』(이한구 지음, 서울: 민음사, 2007)

한 승 완\*

### I. 역사학에 대한 철학적 반성으로서의 역사철학

서양에서 볼테르가 “오직 철학적으로 서술된 역사”<sup>1)</sup>로서 역사철학적 시도를 시작한 이래 역사에 대한 독자적인 철학적 접근으로서의 역사철학은 헤겔에서 정점에 이른 후 점차 그 위용을 잃어간다. 19세기 중반이후 역사철학은 역사학에 대한 철학적 반성의 형태로 존속하거나 아니면 ‘자연법칙’과도 같은 필연성으로 관철된다는 이른바 역사발전 법칙에 대한 사적 유물론의 신념 형태로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20세기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후자 형태의 역사철학은 최종적으로 현실적인 사망선고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계몽주의적 근대가 가졌던 진보에 대한 믿음도 회의의 대상이 되면서 상대주의의 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1) “Geschichtsphilosophie”, in: J. Ritter (Hg.), Historische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 3, Schwabe & Co. Verlag: Basel, Stuttgart, 415쪽.

이제 철학이 역사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통로는 역사학에 대한 철학적 반성인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서 역사철학의 왜소화를 우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학이 다른 분과 지식체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어떤 현실 영역에 대해 발언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역사의 영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 오늘날 철학이 논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해당 영역을 ‘전공’으로 삼는 분과과학과의 대화는 불가피하며, 그렇지 않은 시도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역사철학의 문제적 상황은, 역사 자체에 대해 철학이 고유의 철학적 언어로 무엇인가 발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보다 역사학에 대한 철학적 반성에 있어서도 상대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한구 교수가 『역사학의 철학』에서 출발하는 문제의식도 바로 이런 것이다. ‘일어난 역사’의 진보에 대한 역사철학적 믿음이 붕괴되었다면, 이제 ‘쓰여진 역사’의 진보에 대한 과학철학적 회의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 상대주의, 회의주의에 대항하여 역사학이 다시 과거 세계에 대한 객관적 재현으로서 과학적 합리성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 그것은 역사학적 지식의 객관성, 합리성 그리고 그것의 진보를 입론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길이 상대주의의 시대에 상대주의의 바탕이 되는 다양한 조류들을 무시하고 소박한 역사 실증주의를 고스란히 보존하는 형태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저자가 아담 샤프(Adam Schaff)를 따라 “역사 탐구자가 탐구의 과정에 개입되는 주관의 관점이나 사회적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존재했던 그대로 밝혀낼 수 있다”<sup>2)</sup>는 테제로 정식화하고 있는 역사 실증주의가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철학적 공유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 구성주의, 즉 “역사 인식의 과정에 인식 주관이 갖고 있는 관점이나 세계관

2) 이한구, 『역사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2007, 24쪽. 이하에서는 쪽수만 표기함.

이 불가피하게 개입하므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다”(29)는 구성주의적 태도를 갖게 될 때, 상대주의는 불가피한 귀결일 것이다. 문제는 역사학에서 관점이나 세계관 혹은 역사관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역사 인식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유지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자에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의 보편사로서 복권되는데, 그것은 “지식의 진보사”(495)로서의 역사이다. 역사학적 지식의 진보 가능성, 객관성, 과학성을 과학철학적으로 입론함으로써 보편적 인류 역사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에 대한 회의, 합리성에 대한 회의, 보편주의에 대한 회의가 만연한 시대에 보편적 진보를 기획하며 서구 근대를 열었던 계몽주의적 전통을 복권하는 과감한 목소리처럼 들린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역사학자와 역사철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viii)하고자 했을 때, 역사학에 대한 과학철학적 반성으로서의 역사철학이 다시금 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논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위한 저자의 구체적인 입론과정은 한마디로 방대하다. 역사인식론에서 실재론과 반실재론, 과학적 설명과 이해의 문제에 관해 제기된 중요한 철학적 주장들 전반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그는 가다머(H. -G. Gadamer)의 ‘선이해’와 과학철학 내부의 ‘관찰의 이론 의존성’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구성 과정에서 현재의 인식 주관이 갖고 있는 관심이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개입한다”(58)는 ‘현재주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역사 세계의 구성을 강조하는 ‘실용주의’, “역사 서술은 역사 세계의 반영이 아니라 역사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97)이라고 주장하는 바르트(R. Barthes)와 화이트(H. White)류의 ‘인문주의’에 관한 비판적 서술이 제시된다. 나아가 ‘언어적 전회’와 ‘개념 상대주의’의 문제, 딜타이(W. Dilthey), 콜링우드(R. G. Collingwood), 앤스콤(G. E. M. Anscombe), 리히트(G. H. von Wright) 등의 이해의 방법론에 관한 논의, 험펠(C. Hempel)의 ‘포괄 법칙 모형’으로 대변되는 일원론적 설명 이론에 관

한 논의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포퍼(K. Popper)의 ‘비판적 합리주의’와 라카토스(I. Lakatos)의 연구 프로그램 이론을 통해 저자 자신의 입장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칸트, 헤겔, 마르크스, 토인비 등의 역사관을 분석하고 저자 나름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대략적으로 눈에 띄는 저자들 이외에도 철학과 역사학의 다방면의 전거들이 논의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통해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접근과 설명적 접근의 중요한 주장들을 서술하면서도 항상 상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전체를 관통하는 축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 독자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복잡한 내용을 평이하게 서술하는 문체가 가독성을 높이고 있어 넓은 독자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저자는 철학적인 논변을 일부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주장의 내용과 논쟁점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이 책의 장점이다. 아래에서는 평자가 보기에 저자의 핵심적 주장이라 할 수 있는 “설명적 해석학”과 역사관의 문제를 정리하고 몇 가지 의문을 지적하고자 한다.

## II. “설명적 해석학”의 입론

저자의 문제해결의 출발은 역사 연구에서 관점과 역사관이 개입해 들어올 수 밖에 없으며, 인간의 역사는 행위자의 의도가 구현되는 장이므로, 단지 설명의 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해석의 계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있다. 저자는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에 따라 역사의 장은 인간이 창조한 제도와 생활양식과 같이 ‘객관적 관념의 세계’인 ‘세계3’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문화의 세계로서의 역사에서 “행위의 의도성을 인정”하는 한, 그것은 이해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역사적 “행위는 동시에 설명의 대상”이라는 것이다.(489) 이

러한 전략은 일종의 ‘설명과 이해의 종합’이라 할 수 있는 전략인데, 그에 맞게 저자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적 해석학”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 종합의 구체적 방식은 “1) 이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만들고 2) 설명에 사용되는 법칙을 다양화시키는 것이다.”(269)

우선 객관적 이해의 과정은 포퍼의 “상황의 논리”(292)에 의해 해명된다. 역사가가 역사적 행위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행위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쳤는가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역사가는 역사적 행위자가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잠정적 가설을 세웠고 어떻게 비판적 시험을 거쳐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으로 나아갔는가를 2차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행위한다”는 “합리성의 원리”이다.(297) 이 ‘합리성의 원리’가 확보되면, 특정한 행위는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합리성의 원리’는 “행위의 합리성”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즉 ‘합리성’은 “합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나 “자신의 목표를 자신의 신념이나 평가와 적절히 조화시키는 행위”의 합리성만을 뜻하지 않는다.(296) 그것은 행위자의 신념과 평가, 즉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의 문제, 다시 말해 “신념의 합리성”(295), “해석의 합리성”(297)을 포괄한다. 바로 이 ‘해석의 합리성’까지 포괄할 때 ‘설명적 해석학’은 진정 설명과 이해를 종합한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성을 ... 해석의 합리성과 행위의 합리성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객관적 설명의 가능성이 확보된다.”(같은 곳)

그렇다면 역사적 행위자가 세상을 해석하는 시각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역사가는 무엇으로 보증할 것인가? 여기서 저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과 태도를 마음을 가진 행위 주체의 표현으로 이해하려면, 그가 우리 자신과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서 매우 비슷한 욕구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데이비슨이 제시한 “선의의 원리”(principle of charity)에 기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저자의 ‘설명적

해석학'은 포퍼의 '상황의 논리'를 데이비슨의 '선의의 원리'로 보완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선의의 원리'만으로 과연 해석의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설명적 해석학'이 저자의 핵심적 주장이며 최종적 대안이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좀 더 상세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III. 역사관의 문제

마지막으로 저자는 4부와 5부에서 역사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역사관을 라카토스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과 같은 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것은 '핵심원리'와 "어떤 연구의 길을 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부정적 발견법'과 "어떤 길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긍정적 발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356) 어떤 역사적 탐구가 역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과 함께 무엇보다 '핵심원리'의 필수적인 세 구성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것은 "1) 역사의 주체, 2) 주체의 본질적 속성이나 추구하는 목적 및 그 목적을 실현시킬 수단, 그리고 3) 역사의 진행 방향"이다.(349) 4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으로서 4개 역사관, 즉 "인본 사관 (볼테르)", "유심 사관 (헤겔)", "문명 사관 (토인비)", "유물 사관 (마르크스)"을 제시하고 있다.(359~361) 그리고 연구프로그램으로서 역사관들은 상호 우열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데, "새로운 역사관이 지금까지 관계없던 사물들이나 사실들을 통일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역사관이 독자적으로 시험"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역사관이 보다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 등을 비교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5부에서는 근대의 대표적 역사관으로 '이성 사관', '유심 사관', '유물 사관' '문명 사관'을 들고 이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저자가 검토할 역사관을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 불완전한 매거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4부에서 제시된 4개의 역사관과 5부에서 서술하고 있는 4개의 역사관 중 ‘인본 사관’과 ‘이성 사관’만이 달라졌는데, 이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필요했던 것처럼 보인다. 저자는 ‘인본 사관’이 계몽주의적 진보 사관이라면, 그것의 전형이 칸트의 ‘이성 사관’이라는 점에서 후자를 통해 전자의 특성이 충분히 서술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논자가 역사인식론에 관한 서술에서 중요한 비판 대상으로 삼았던 반실재론적 입장들, 특히 포스트모던적 입장들도 하나의 역사관으로서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라면, 이 방대한 작업은 보다 완결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니면 저자는 실제로 포스트모던적 입장들을 하나의 중핵가설로서의 역사관이라 여기지 않아, 당연히 역사관에 관한 서술에서 배제했을 수도 있다. 가령 저자가 보기에 ‘실증주의’가 하나의 역사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역사의 주체, 역사의 목적과 실현 수단, 역사의 진행 방향이라는 핵심원리를 갖추고 있지 못한 방법론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이 이런 연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상대주의 역사학과의 대결이 이 책의 중심 주제인 만큼, 역사관에 관한 서술 부분에서도 간략하게나마 이들 입장에 대해 다시 비판적인 언급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한국 역사학계의 3대 학파, 즉 ‘실증 사학’,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 사학’을 평가하면서 각 학파가 지닌 장점과 한계를 병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머물고 있다. 독자는 아마도 여기서 이러한 ‘중립적’ 평가보다는 한국 역사학계의 3대 역사관이 각기 연구프로그램으로서 어떤 핵심원리와 보호대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관한 과학철학적 분석을 기대했을 것이다. 특히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설명적 해석학’이 역사관들의 상호 우열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의 진보사’를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적 분석은 바로 저자가 이 책을 통

해 시도하려 했던 것, 즉 ‘역사학자와 역사철학자의 함께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몇 가지 의문과 아쉬움은 저자가 이 방대한 저서를 통해 제기하고 있는 의제의 무게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